



전통적이고, 시적이고, 모던한, 한국의, 일러스트레이션.
 < 지난 4월에 개최된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볼로냐 라가치상 시상식장은 그야말로 한국출판계 축제의 장이었다. 수상작의 영예를 안은 여덟 작품 중 두 작품이 한국에서 출판한 것이었는데, 이는 한국 입장에서 최초의 수상이기도 해 축하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수많은 한국 출판인들이 시상식장을 가득 메웠으며, 한국작품이 호명되는 순간에는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수상식장에서 만난 볼로냐 라가치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안토니오 파이티 교수는 줄곧 한국 어린이책이 전해준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손꼽는 한국책의 매력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심사과정에서 그가 느낀 한국책에 대한 생각들을 간단히 소개하니 2005년 볼로냐 라가치상에 도전하는 출판사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올해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실시한 볼로냐 라가치상 심사위원회의 모임은 지난 2월에 시작됐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위원회에 참여했던 나는 한국 어린이책의 우수성을 익히 눈여겨 보아왔다. 그 중 특히 올해는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3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며 한국책의 강한 매력과 감동을 전해 받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한국적 전통을 고스란히 담아낸 우아한 어린이책이 많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윤보원은 다양한 색판화를 이용해 동화, 전설, 민담 등 한국 고유의 이야기들을 세련되게 표현했다. 그의 그림은 시적인 감수성이 유난히 돋보이는데 단순 회화양식에서 벗어나 독특한 형식으로 고유전통의 우아함을 소개한 점을 높이 사고 싶었다. 그의 책은 물론이고 이 밖에 한국의 어린이책이 보여주는 전통에 대한 관심 속엔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고유의 우아함과 세련미가 숨겨져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웅진닷컴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웅진닷컴의 책은 전통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모던함이 돋보이는 책이었다. 가령 책을 장식하는 두 조각의 천들은 고풍스러우면서도 비구상적인 현대미술의 한 유형을 떠올리게 하는 개성을 갖췄다. 또한 이 책은 환상의 세계에 온 듯한 동화적 공간을 완성해 이탈리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세 번째 특징은 초방의 《지하철은 달려온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바쁜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 사람들의 삶을 재미있는 한 편의 시로 엮어 내고 있다. 특히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은 콜라주로 완성된 실험적인 일러스트였다. 이 책은 세련미와 지성미를 물씬 풍기고 있는데 특히 산업디자인적인 터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작가 부르노 모나리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산업화로 황폐된 도시의 모습에 시선을 두기보단 새로운 신시가지 풍경이나 산업화 덕에 발달된 도시문화 등 새로워진 도시 문화담론을 실험적인 표현기법으로 담아낸 그림책이다.

물론, 이 세 가지 특징은 이번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많은 한국작품들 속에서도 보여졌다. 이번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본 한국의 얼굴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도서들과 비교할 때 특히 강한 개성을 드러냈으며 일관된 면을 보여 주었다.

글 · 안토니오 파이티(볼로냐라가치상 심사위원회 위원장)